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NOVEMBER 2014

SERUM THE BEST

삼페인의 도시, 랭스 vs. 태양 가득한 코트다쥐르
열정의 컬렉터, 아라리오 뮤지엄 김창일
젊은 날의 내게 띄우는 Beauty Letter





두 연출가의 만남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미술계의 두 젊은 감독(!)이 만난다. 작가적 연출을 통해 사람들의 꿈을 작품 안에 담아내는 정연두 작가, 그리고 중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냉소적인 시각으로 고발하는 왕칭송이다. 두 작가는 주어진 풍경이나 인물을 촬영하는 대신, 사진과 설치미술의 장르를 넘나들며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적확하게 연출해 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왕칭송은 미술관의 7미터 높이의 벽에 'Soriasis'라는 대규모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어로 된 전단지를 직접 제작하고 설치한 작품으로, 광고의 홍수 속에 소외되는 인간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꼬집는다.

location 대구미술관

date 9월 20일~2015년 2월 1일 **tel** 053-790-3000